

사천시 민선 4기 공약사업 10개 분야 100개 사업 확정

시에서는 9월 14(목) 오후 4시 30분에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 시정자문단 회의를 열어 민선 4기 김수영 시장 공약사업을 10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정했다.

거쳐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김수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97건에 민선 3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 2건과 타 후보 공약 1건을 포함시켜 10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저도시 건설,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민원불편 및 서민가계 부담경감, 지역인재 육성 투자 확대, 일등시민, 최고의 공무원 되기 등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정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사천시에서 5·31지방선거 시 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소관부서별 검토와 보고회를

10개 사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전,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멋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건설, 남해안 최고의 관광레

시에서는 이날 확정된 공약사업에는 2010년까지 국·도비와 민간자본을 합하여 14,38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중 시비는



2,2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공약사업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급전 하반기에 중앙부

사천시 공무원 혁신워크숍 개최

사천시는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9월 12~13일 1박2일 과정으로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날 전 참여자가 '혁신실천 행동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번 교육이 1회성 교육이 아닌 혁신의 생활화를 다짐하는 뜻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7급 이하 공무원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천시가 버거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과제 도출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

분임별 개선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전 참여자가 함께 토론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

지방행정혁신 체험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 혁신활동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체험수기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부문 : 지방행정혁신 체험수기 및 아이디어
- 응모대상 : 일반 국민
- 응모기간 : '06. 9. 18~10. 20(우편은 10. 20자 소인 유효)
- 응모주제 및 내용
- 응모방법
- 응모신청서(행정자치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와 원고를 e-mail(주소 : eckim@gnsd.net 또는 jeand@gnsd.net) 또는 우편으로 응모자의 주소지 소재 경상남도 혁신분원 담당부서에 제출
- * 주소 : 우)641-702.
- 창원시 대방로 1번지 경남도청 혁신분원과
- * 우편접수시는 반드시 응모신청서 및 원고가 수록된 디스크 제출
- 원고분량 : A4 용지 5~10매 정도 (서론-본론-결론 3단 구성을 취함)
- 원고규격 : 한글 신형조 13 point (스타일 본문, 자간 160%, 상하좌우 여백 15, 머리말 · 꼬리말 15)
- 발표 및 시상
- 발표 : '06. 11월 예정(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 심사 : 1차 심사(경상남도), 2차 심사(행정자치부)
- * 1차 심사 결과 우수작을 부분별 각3건 이내로 2차 심사에 추천하며, 1차 응모자에 대하여 상품권 지급
- 시상내역(부분별)
- 최우수상 각 1명 : 상장(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각 2명 : 상장(행정자치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 각 5명 : 상금 10만원
- * 부분별 시상작품수는 응모·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상식 :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폐막식(11.23, 부산 벡스코)에서 수여 예정
- 유의사항
- 원고 접수후에는 접수 여부를 시·도 혁신분원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바람.
- 미발표된 작품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발표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표절 작품은 제출 및 수상할 수 없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함.
- 제출한 작품의 저작권은 행정자치부에 귀속되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요구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상작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책자로 발간될 예정임.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이상의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Tel.02-2100-3746) 또는 경상남도 혁신분원과(Tel.055-211-2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

제12강 김형모 십대들의 족지 발행인

10월 12일 사천체육관 오후 2시

시민들의 교양함양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사천시가 혁신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천아카데미'가 300여명의 수강 회원 확보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사천아카데미는 새로운 지식과 더불어 옛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양함양과 견문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규회원 확보로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관심과 충고가 사천아카데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회원제 실시와 감사 선정 등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가 시민들로부터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구의 노력을 강구해 가고 있지만, 본 강좌가 유익한 교양강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인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아카데미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충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이니만큼 매일 하루 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웃과 함께와서 같이듣고', '기다려지는 아카데미'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총무과 ☎830-4270

▶ 제12강 10월 12일 김형모 십대들의 족지 발행인 '변화하는 청소년의 의식과 부모의 역할'



제12강은 오는 10월 12일(목) 오후 2시 사천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미네소타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8년간 매일 십대들의 족지 30만부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 무료 배부하고, 포함제철·현대·기아자동차 등 기업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KBS TV '아침마당', MBC, CBS, 국방송 등에서 청소년 상담 프로에 출연하였고, 현재 십대들의 족지 발행인, 도서출판 '족지'사 대표, 자유기고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교육분과위원, 미네소타 신학대학원 아시아 신학센터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위원회 선정 전문화부문 청소년 대상 수상하였고, 저서로는 「족지야 세상의 지혜는 따로 있다」, 「십대들을 이렇게 도

우세요」「이대로 어른이 된다면」「포기하려는 갈등보다 도전에서 오는 갈등이 더 멋있다」「나도 잘하고 싶어요」의 다수가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소개 등 명강의가 예상된다.

▶ 제13강 11월 15일 이영권 명지대 교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이해'



사와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경동대학교 외래교수, (주) 이미지네이션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명지대 겸임교수와

KBS 2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자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가 보인다, 경쟁력이 보인다」의 다수가 있다. 이영권 박사의 강좌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경제 강연으로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좋은 강의가 기대 된다.

제1회 사천사랑 사이버퀴즈 대회

시에서는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기간인 10월 18 ~ 22일(5일간)에 맞추어 제1회 사천사랑 사이버 퀴즈 대회를 개최한다.

제1회 사천사랑 사이버 퀴즈 대회는 10월16 ~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되며 시와 관련된 내용과 항공 관련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여 항공우주메카로서의 사천을 전국 네티즌에게 알리고, 시민에게는 정보와 마인드 확산과 애郷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개최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 출제 및 정답을 접수하며 전국 네티즌 중 사천사랑 홈페이지 등록 회원을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상방법은 10월 24일 수상자 발표 후 시상품을 개별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계획이므로 사천시는 참가 네티즌에게 응모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상품은 토틱이상(1명)

에 디지털카메라를, 거북선 상(5명)에 MP3플레이어(1GB), 와룡산상(10명)에 USB메모리(2GB)를, 삼천포 대교상(30명)에 USB메모리(1GB)를 시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시상명칭은 우리지역의 상징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참가자에게 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각인시켜 우리시를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2006년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2007년도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한 2006년도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 동안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남유도회 및 사천시유도회가 주관하며, 사천시와 경상남도, KBS 한 국방송공사가 후원하는 대회로서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전국의 유도선수 및 임원, 선수가 족 등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이번 대회가 사천시 유도 발전을 기여하고 사천시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본 대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절한 손님맞이에 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사천시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전국농구대회 및 전국태권도대회, 노을마라톤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도에 창선·삼천포 대교개통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전국중고농구대회 및 전국종별태권도대회, 전국실업농구연맹전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계속 유치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

시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 시민이 가족과 함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전기, 가스, 수도물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일 8개반 16명의 상황 근무조와 120 생활민원 처리반을 비상 근무케 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당번을 지정하여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을 맞아 생활주변에 대한 범시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체불 임금 청산,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지도와 귀성객들의 교통사고예방 등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 특별 대책 추진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전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훈훈한 명절을 다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생활불편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종합대책상황실(830-4201)이나 시청 당직실(830-4222)로 연락

추석절연휴가스판매업소 현황

일 자	판매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10.5 (목)	문화가스	동동 206-16	832-3434
	외통에너지	대방동 765-12	832-1788
	제일가스	서포면 외구리 213-9	854-3400
	삼천포제일가스	향촌동 943-16	833-3696
	사천가스	사천읍 정외리 45-1	852-8989
	용원가스	용원면 송지리 322-3	834-0988
	사남가스	사남면 화전리 1224-4	854-5959
	군명농협가스	관평면 추천리 542-7	854-7004
	선내가스	관평면 송천리 140-12	833-1003
	삼진가스	용강동 448	832-6244
10.6 (금)	남양가스	죽림동 662	834-4006
	한샘가스	향촌동 926-12	832-4444
	신일가스	사천읍 정외리 167-2	852-3038
	동산가스	사천읍 두랑리 1448-3	852-8864
	사천통합가스	사천읍 두랑리 926-3	854-6935
	서포가스	서포면 구평리 1136-5	854-2251
	천삼가스	동동 436	853-0688
	금정가스	이금동 44-4	835-6649
	대성가스	용강동 353	835-0220
	산삼가스	사남면 죽천리 323-13	853-3313
10.7 (토)	한국가스	대방동 764-5	833-8284
	종합가스	사천읍 산외리 178-3	852-0601
	사천산소가스	사천읍 두랑리 1264-1	852-8880
	남작가스	대방동 764-16	832-0803
	온정종합가스	축동면 배촌리 553-2	853-4999
	우리가스설비	관평면 본촌리 457-1	853-2470
	서포제일가스	서포면 금진리 473	854-2147

추석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진료현황

(사천시 보건소 055-830-4747) ○ 정상진료 ● 오전진료 ○ 오후진료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계획				비고
			10.5 (목)	10.6 (금)	10.7 (토)	10.8 (일)	
계	51개소						
소계	7개소						
병	사천중앙병원	읍 선외리 313-1	852-7522	○	○	○	응급운영
성모병원	정동 고읍 593-1	852-8002	○	○	○	○	당직운영
경남도립정신병원	축동 가산 447-1	854-6000	○	○	○	○	상 동
순명병원	축동 가산 450-1	854-6000	○	○	○	○	상 동
경남도립	축동 가산 447-2	854-6000	○	○	○	○	상 동
원	사천노인전문병원						
삼천포서울병원	동금동 69-2	835-9900	○	○	○	○	응급운영
한마을병원	향촌동 442-1	832-3311	○	○	○	○	응급운영
소계	35개소						
보림의원	읍 평화리 178-14	852-2338	○	○	○	○	
사천제일의원	읍 수석리 254-19	852-7582	○	○	○	○	
김소이과의원	읍 수석리 282-7	852-7501	○	○	○	○	
의	박내과 의원	읍 수석리 270-12	854-2833	○	○	○	○
박진수비뇨기과의원	읍 수석리 269-16	854-8675	○	○	○	○	
박재보정형외과의원	읍 수석리 273-5	852-7505	○	○	○	○	
손의원	읍 평화 44-6	855-1575	○	○	○	○	
원	문인과의원	읍 수석리 270-12	855-0082	○	○	○	
고려의원	사남 화전 1315-1	854-4475	○	○	○	○	
성모의원	읍 양 남문외 52-15	855-0085	○	○	○	○	
선린외과의원	관평 정곡 857-10	852-3336	○	○	○	○	
해민의원	관평 정곡 843-10	853-1201	○	○	○	○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계획				비고
			10.5 (목)	10.6 (금)	10.7 (토)	10.8 (일)	
서포중앙의원	서포 구평 658-11	852-8646	○	○	○	○	
김태석의원	서포 구평 890-12	852-7630	○	○	○	○	
삼천포우리의원	동동 156-31	833-7506	○	○	○	○	
인성의원	선구동 18-153	833-2331	○	○	○	○	
장내과의원	선구동 20-8	835-0423	○	○	○	○	
메리놀내과의원	동금동 90-2	835-3353	○	○	○	○	
이화소아과의원	동금동 89-1	833-5335	○	○	○	○	
하인태부과의원	동금동 89-1	833-8279	○	○	○	○	
이신규소아과의원	동금동 90-1(1층)	835-3377	○	○	○	○	
수비인후과의원	동금동 90-1(2층)	833-7765	○	○	○	○	
삼천포성모안과의원	동금동 90-1(3층)	833-7588	○	○	○	○	
보림의원	발리동 461-7	833-4400	○	○	○	○	야간진료
삼천포정형외과의원	발리동 491-1	832-1171	○	○	○	○	
제일소아과의원	발리동 461-7	833-4400	○	○	○	○	야간진료
서울정형외과의원	발리동 253-9	835-3696	○	○	○	○	
삼천포내과의원	발리동 491-8	832-3132	○	○	○	○	
김기주 의원	발리동 44-2	832-3580	○	○	○	○	
김내과 의원	발리동256-17	832-5599	○	○	○	○	
청아산부인과의원	발리동480-4	835-3501	○	○	○	○	응급분반
행복의원	발리동 261-1	832-8297	○	○	○	○	
한대취룡증의원	발리동 480-1	832-2825	○	○	○	○	
늘푸른산부인과의원	발리동 480-1(2층)	833-2777	○	○	○	○	
삼성의원	축림동 866-1(2층)	835-7664	○	○	○	○	

복지알림방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1. 추진 배경

2001년 7월 1일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 인상을 지원 -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II.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진입 중단

사천자활후견기관 SJ미래봉제
공동체 발대식



저소득계층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천자활후견기관의 봉제 사업이 2005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8일에는 참여자 권수진 대표를 중심으로 SJ미래봉제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SJ미래봉제 공동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체육복을 하청 받아 생산하는 곳으로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36개소, 고등학교 24개소에 연간 1만여벌의 체육복을 생산하여, 2007년도에는 완전 자립 공동체로 나아가갈 계획이다.

보건알림방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2차 운동



사천시는 10월 26일(목) 시 산하 전 공무원 및 각 기관, 단체의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사천청사 광장에서, 오후에는 삼천포청사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2차 운동을 실시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2차 운동은 절대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의약품 제조용 원료 혈장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이웃사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천시보 건소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혈액원의 체혈반의 지원을 받아

헌혈 가능 조건을 갖춘 헌혈 희망자를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여 채혈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혈액원에 모두 기증할 예정으로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2차 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간기능검사, 지질대사 이상유무 검사, B·C형 간염검사 및 정확한 혈액형 및 혈압 측정을 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헌혈 증서를 교부한다.

헌혈 당일 교부된 헌혈증서는 헌혈차량 내에 설치된 '헌혈증서 모으기' 창구를 통하여 기증받아 우리 주변의 불우한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점차 줄어드는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2차 운동에도 뜻있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기를 당부 드리고 있다.

농산물 상품권 기탁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지부장 김성민)에서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농산물 상품권 200매(2,0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농협에서는 기탁한 상품권을 지난 7월 31일 태풍 피해 위니아 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

청하여 142세대(세대당 1매)에 대하여 전달하고 나머지 상품권(58매)은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 작은 정성이나마 태풍 피해 주민과 결혼 이민자에게 정성을 베풀어 작은 미담이 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SJ미래하우징(자활공동체)
 - 인원 - 1명, 급여 - 면접 후 결정
 - 대상 - 저소득계층 중 45세 미만의 운전 가능한 남자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
 - 인원 - 6명, 급여 - 65만원
 - 대상 - 차상위계층 여성, 모자 가정
 - 모집지역 - 사천읍 구암, 좌동 통 삼천포도서관, 서동 선
- 영농사업단
 - 인원 - 3명, 급여 - 65~70만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농사 경험이 있는 55세 미만의 남·여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사무소, 사천자활후견기관 ☎ 855-0422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줄일 수 있도록 3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교전형 등이며 총 31백만원의 예산으로 230명의 노인들이 사업유형에 따라 10월말까지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봉놀이 접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노인들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인력교전형 사업을 2개소 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업체나 단체 등은 우리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830-43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우리문화 적응 교육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문화 적응 교육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6월부터 주2회(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한다.



한글교육을 비롯하여 발양갱 및 송편 등을 만들었으며, 10월 9일은 잡채, 10월 30일은 만두 빚기, 11월 13일은 인절미 만들기, 11월 27일은 김치 담그기 등의 요리강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에는 우리지역을 둘러보는 지역 문화체험 행사와 다그기 등의 요리강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 조기적응을 돕고자 한다.

지역순회 한방·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운동



- 진료기간 : '06. 10. 10 ~ 11. 2까지
- 진료반 : 1개반 5명 (한의원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전기사)
- 진료장소 : 마을회관 및 경로당
- 진료방법 : 대상마을별 주1회 방문 물리치료 및 노인운동

5. 진료내용

- 한방진료 및 침, 뜸, 부항 시술
- 의료장비를 이용한 재활 물리치료
- 재활운동 방법 지도 및 치매예방 교육
- 관절운동, 치매예방에 필요한 스트레칭
- 혈압 및 혈당측정

□ 지역순회 진료 일정

월	일	자	읍면동	마을명	장소
10월	10월 10일(화)	14:00~16:00	곡안면	굴포마을	마을 경로당
	10월 17일(화)	14:00~16:00			
	10월 24일(화)	14:00~16:00			
	10월 31일(화)	14:00~16:00	다대면	다대마을	마을 경로당
	10월 12일(목)	14:00~16:00			
	10월 19일(목)	14:00~16:00			
	10월 26일(목)	14:00~16:00			
	10월 26일(목)	14:00~16:00			
	11월 02일(목)	14:00~16:00			
	11월 02일(목)	14:00~16:00			

*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 830-4755로 문의바랍니다.

건강가정 순회교육

여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및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장, 부녀회장,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가정 구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내용으로는 국제대학교 허영희 교수의 사천시 여성의 행복

지수 높이기, 경상상시협회 박정연 회장의 성매매 예방 및 사례, 사천성폭력상담소 김성숙 소장의 사천시 여성폭력의 실태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발생시 즉각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치료(Art therapy)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더불어 정신적 회복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술치료 기초과정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06. 10. 11(수) ~ 11. 29(수) [8일간 주1회] 매주 수요일 13:00 ~ 18:00
- 모집기간 : 2006. 9. 18 ~ 10. 7(3주간)
-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30명 미달하는 운영 취소)
- 교육장소 :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실(벌리동 소재)
- 모집대상 : 미술치료(상담 등)에 관심이 있는 사천시민
- 교육과정 : 미술치료 기초과정
- 강사 : 미술치료전문가 김갑숙 외 전문강사
- 수강료 : 무료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접수처 : 사천시 사회복지과 ☎ 830-4359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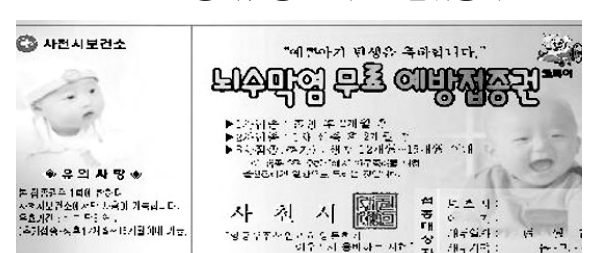
뇌수막염(해모필루스(Haemophilus) 인플루엔자 세균성 B형)은 영아나 소아에게 침투해 뇌막염, 중이염, 후두개염, 화농성 관절염, 잠재성 패혈증,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영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사천시보건소에서 무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은 올해 9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예방접종으로 2006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사천시 거주 영아로 무료 예방접종을 제시하면 누구나 접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권(쿠폰)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인 3매(기초접종 2매, 추가접종 1매)를 지급하고 있다. ○ 무료 접종대상자 - 2006년 6월 1일 이후 출생된 영아로서 부(父) 또는 모(母)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영

아의 주소가 사천시에 되어있어야 됨) 뇌수막염 예방접종권(쿠폰) 소지자에 한함 ○ 접종장소 : 사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 보건지소에서는 뇌수막염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접종시간 : 월~금(09:00 ~ 12:00)
○ 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생후12~15개월 (총3회 접종)

○ 문의처 : 830-8763(사천시 소재 보건관리과) 830-8477(동서공동 소재-보건위생과)



수산물축제 주요행사 안내

날짜	시간	행사명	장소
10.20 (금)	13:00~16:00	생선회오리 경연대회 및 무료시식회	행사장내
	16:00~18:00	공군외장대 공연	행사장주변
		풍경미술 시범공연	복합무대
		각설이 공연	복합무대
		매각식	복합무대
		레이저 불꽃쇼	행사장 주변
	18:00~20:00	바다사랑 가요제	복합무대
		인기가수 축하공연	복합무대
		열기구 탑승 체험	행사장 주변
		한마음 걷기대회 (활어위원장~초양대교~활어위원장)	활어위원장
10.21 (토)	10:00~12:00	선박페스티벌(삼천포대교 인근 해상)	연안바다
		지어바류행사	위원장 바자선
		가족 홀다후프 경연대회	복합무대
		한마음 걷기대회 행운권 추첨 (참가자 전원 기념품)	복합무대
		바지락가기 체험	행사장내
		가족 미니뉴스체험	연안바다
		소망점, 방제점 시범 및 인명구조훈련	행사장앞 연안
	12:00~18:00	해적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어린이행사)	행사장내
		일일경매사 및 경매가 탑재체험	활어위원장
		죽방림 체험행사 (유랑선 승선 소요시간 1:00)	행사장앞 연안
	열기구 탑승체험	행사장 주변	
	봉경어 잡기 체험	복합무대	
	매각식	복합무대	

사천시 공고 제2006-973호

200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일
사 천 시 장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법정계량기종 거래 또는 증빙에 사용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계량기
① 관수용저울 ② 집시지저울 ③ 전기지저울 ④ 분동 및 추
⑤ 전량논세입량크 ⑥ 논세입량크 ⑦ 계량중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검사일시 및 장소
- | 일 자 구 분 | 당일 : 10:00~12:00(오전) | 당일 14:00~17:00(오후) |
|----------------|----------------------|------------------------|
| 2006.10.10(화) | 검사장소 : 용원면사무소 | 검사장소 : 검사구역 |
| 2006.10.12(목) | 검사장소 : 사남면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0.16(월) | 검사장소 : 정동면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0.18(수) | 검사장소 : 축동면사무소 | 검사장소 : 관명면 |
| 2006.10.20(금) | 검사장소 : 서포면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0.24(화) | 검사장소 : 관안면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0.28(토) | 검사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0.30(월) | 검사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 2(목) | 검사장소 : 구 동화동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 6(월) | 검사장소 : 구 동화동사무소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 8(수) | 검사장소 : 신구동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10(금) | 검사장소 : 삼천포공설운동장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14(화) | 검사장소 : 좌동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16(목) | 검사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검사장소 : 좌동 |
| 2006.11.17(금) | 검사장소 : 삼천포공설운동장 | 검사장소 : 좌동 |
| 2006. 12. 5-15 | 계량기 소재지 | 읍·면·동 지역 : 소재장소 검사(연차) |
| 2006.11.21(화) | 사천공설운동장 | 전 읍·면 미검사 계량기 |
| 2006.11.23(목) | 삼천포공설운동장 | 전 동 미검사 계량기 |
- 기타사항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관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 830-45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 사천시에서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민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외문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2. 1일부터 2006. 11. 30일까지 사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055-830-8269)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진실규명 신청의 범위는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작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내란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외문사건 등이며,
▶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개별법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목,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2.25 이후의 공안사건 사건 등)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료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다만, 이 경우에는 진정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또는 사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055-830-8269)에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접수처 및 연락처
- 주소 : (우964-701) 경남 사천시 벌리동 427-1 사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 전화 : 055 - 830 - 8269
- FAX : 055 - 830 - 4278

사천시공고 제969호

9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고

○ 사천수도서비스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매일6개항목, 매주8개항목, 매월55개항목, 매월 16년이상 노후관11개항목, 매월 가정수도꼭지 5개항목, 매분기 급수관정비(12개항목)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9월 관명정수장 및 관명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상수도 정수장

정 수 장 명	관명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위 치	관명정수장 선65-1	사천권관리단
검 사 항 목(총55개)	수 질 기 준	수 질 검 사 결 과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3 불소	1.5mg/l이하	불검출
4 암모니아질소	0.5mg/l이하	불검출
5 질산성질소	10mg/l이하	1.0
6 잔류염소	0.2 ~ 4.0mg/l	1.10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20
8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154
9 경도	300mg/l이하	3.8
10 수소이온농도	5.8 ~ 8.5	7.3
11 중금속류	500mg/l이하	133
12 철	0.3mg/l이하	불검출
13 탁도	0.5 NTU이하	0.03
14 냄새(이취 없음 것), 맛(이취 없음 것)		적 합
15 할로아세틱에시드류의 10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6 대장균과 28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2. 검사결과
○ 9월중 관명 정수장 및 관명상수도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55개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로 적합하며,
○ 수돗물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수성정전염병 예방 및 2차 오염예방을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쾌하시더라도 보리차 등을 넣어 끓여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드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서비스센터장

제108회 사천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사천시의의회(의장 김철현)는 지난 9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제1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 제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동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도 높은 질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52건의 건의와 27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정희 의원과 최갑권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요지

◆ 이경익의원

【문】 상근인력과 일시 사역인부를 채용할 시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4대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을 기준에 맞게 하고,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시 사역인부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 상근인력에 준하는 임금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시의 상근인력은 '사천시 상근인력 관리규정'과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 31명, 환경미화원 70명, 도로보수원 13명, 단순노무원 43명 등 총 157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정부노임 단가에 근거하여, 업무분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고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2005. 9. 1부터 적용하도록 고시된 최저임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급 24,800원임.

우리 시를 포함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 노임 단가는 최저 23,160원부터 최고 52,100원까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인 23,160원을 적용받는 분야는 환경미화원과 화장장 근무요원이 있으며, 이들은 그 급여체계가 다른 비정규직과 다른 봉급제 형태로 되어있어 실제 이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다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수당이 적은 일시사역 인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급여 수준인 것이 사실이며, 만약 위법한 임금체불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4대 보험의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근인력의 경우 모두 가입된 상태이며, 한시적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용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도우미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의거 미 가입되고 있으며, 미 가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문】 불가피하게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해야 할 경우라도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숙지하게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체제가 되면 상근인력의 경우 채용부서 일원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단기간의 일시 사역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체

용부서를 일원화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채용과 관리 일원화를 통한 고용현황 파악과 노동관계법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등 최선의 방안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서포콜포장 개발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답】 우리 시의 지방세수입이 2006년에 251억원에 불과하지만, 서포콜포장의 경우 공사초기 예상되는 세수가 110억원이며, 향후 운영 시 매년 12억원의 지방세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시 지방세 수입의 4.7%에 해당되는 세수이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수입이라고 생각하며, 고용효과 또한 국내 골프장의 18홀 기준 경우 정규직이 65명 캐디 80명 일용직이 하루 20명 등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 발표한 바 있고, 서포콜포장의 경우, 27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운영 인원이 250명 정도가 필요하며, 건설 기간 동안에는 연 인원이 1만 5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함.

【문】 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서포콜포장 관련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근거와 대책은?

【답】 서포콜포장의 입안 과정은 골포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따라야 함.

사천시와 GS건설과의 MOU(양해각서) 체결로 체육시설인 골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안 과정에는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등을 포함한 입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성 검토를 우선해야 함. 여기에서, 이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의 80%이상 매입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안을 하여 법규정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사천시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이기 때문이며, 민간인이 사천시장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서포콜포장의 경우 사천시장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로서 토지의 매입은 필요치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졌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함.

【문】 공무원이 주민을 외면한 채 오히려 험악해 부지를 매각토록 용역하는 등 주민갈등만 조장하므로 GS건설과 사천시 간에 맺은 MOU 파기 용의는 없는지?

【답】 해당 토지의 지가문제는 국가공인기관인 2개 평가법인에서 평가하였으며, 주민 편에 서서 한 편이라든 높은 가격으로 받아 주길 원하지 않음으로 매각토록 종

용하는 공무원이 세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가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포콜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입증대 등을 꾀하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완성시켜서, 골포장이 완공된 훗날 모든 분이 그 당시 시의원인신 이정희의원님께서 격정하시고, 집행부에서 모든 역량을 바쳐 훌륭한 골포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골포장 MOU 체결 파기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함.

【문】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시의 환경 분야와 관련한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청소 대행 업무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특수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와 사천시 폐기물 소각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는 공적내부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2000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시설을 신규 건설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치단체의 직영을 구조적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음.

또한, 쓰레기 소각로는 일반 시설물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운영상의 전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지만,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 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우리 시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영에 따른 신규조직을 경상남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 시는 현재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매달 수십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인력 총원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직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음.

【문】 우리 시 산하에 장애인 고용지원 센터를 두어, 장애인 고용수당을 전담하고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맞게 취업알선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시 등록 장애인 5,927명(현재)중 직업을 가진 자는 1,180명(단순노무자 638명 제외) 취업률은 24%이며, 농·어촌도시 지역이라 농업을 종사하는 장애인이 686명으로 12%로 제일 많이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사무직종사자 338명 5.7%, 상업종사자 333명 5.6%, 어업종사자 123명 2%로 나타났으며, 전국 취업률 23%보다 조금 상회하며, 장애인 고용수당센터의 운영은 2007년 우리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시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고, 인간적 가치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를 두어 구인업체와 구직자 상담, 구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흥미 평가, 훈련, 취업알선을 실시 하겠음.

【문】 전시성 행사를 없애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는 부름이택시 도입을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집행되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장애인 교통수단으로 휠체어택시 1대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한 휠체어택시 1대를 포함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비가 1,680만원(1대를 집행하고 사천시 장애인실버센터를 2005년도에 개소하여, 차량 1대와 종사원 3명으로 매일 수시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6,240만원(도비, 시비 각 50%)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문】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주·단기 보호 시설을 앞당겨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 제도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장애인도우미 91명이 등록되어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교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연간 우리 시 예산 1억4,37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부담 우리 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대상자가 많아지면 수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 될 것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2007년 상반기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장애인주간보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경상남도와의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 최갑권의원

【문】 남일대 리조트 조성,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삼호조선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대로 2008년 12월말 종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 본 사업은 남일대 해수욕장을 관광지원으로 하는 남일대 유원지를 남일대 리조트(주)에서 유치사업으로 관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 사업의 기간 내 완료 여부를 집단민원과 전체지번과 같은 외적 요인만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슨 사업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고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업을 완공시키게 되는 것임.

남일대 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하에 토지 등 보상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콘크리트 운搬을 친환경적으로 변경, 산 절개지 처리와 오솔길 설치,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건축이 불가하므로 아영장, 텐트장 사용요구와 주차장 주변에 있는 전·답을 주거지역으로 지정 근린시설과 민박시설 등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면서 주차장 관리를 마을 주민에게 이양하도록 해달라는 등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공업체와 협의, 주민요구의 수용부분과 불수용 부분을 분명히 가려 처리토록 하겠음. 당초 우리 시 향촌동에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 소속 20여개 업체가 우리 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3만 3천평 규모의 수산물 가공 전문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지난 3월 16일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 삼호건설(주), 사천시와 삼자 간 약정서를 체결한 후 지난 4월경에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에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도록 요구하자 당초 20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줄어 부족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진해시 용동 소재 오징어 가공조합을 수차례 방문, 협의를 계속해 우리 시 관내 10여개 업체와 기장군 10여개 업체로 구성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개발할 계획이며,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8년 말까지의 조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 향촌동 666-3번지 일원에 공유수면 2만8천평을 포함 약 8만평 규모의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통영시 소재 (주)삼호조선과 우리 시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7월말에 (주)삼호조선과 서울 오세 동명기술공과대학교를 위한 기본 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집단 민원 등이 없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 또한 2008년 말까지 조성 가능하다고 판단됨.

정동 고읍 단감정보화마을

단감 체험한마당 축제



정동면 고읍 단감정보화마을(위원장 강두영)에서는 사천강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천의 특산물인 단감을 소재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은 물론 볼

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하여 여가선용의 계기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어른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단감체험 한마당 축제를 10월 24일과 10월 29일에 개최한다.

행사내용으로는 10월24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가, 10월29일에는 일반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감따기 체험, 단감꾸기 등 경연

대회, 단감 떡시식, 감잎차 시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참가접수는 마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goeup.invil.org)와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을정보이용센터 ☎055-852-7634, 5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동고읍단감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5년 정보화마을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범비 5,000만원으로 마을정보이용센터 회의실 리모델링 및 체험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변 환경을 말끔히 단장하고 손님 맞기를 끝낸 상태이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멕시코 전통 무용단 (Ballet Mexico Folklorico) 사천 공연

- 일시 : 2006년 10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경상남도, 사천시/경남예총
- 내 용 : 데킬라와 마리

아치의 고장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할리스코주의 전통무용을 공연하는데 15명의 단원이 화려한 멕시코 전통의상과 경쾌한 멕시코 전통무용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통해 멕시코의 민속과 스페인의 기독교 영



향하에서 문화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멕시코 전통무용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수동정

1. 전국 [출향인사 환영의 밤] 행사

사천시는 2006년 9월 22일 저녁 7시 사천시민의 '대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10회 시민체육대회 날 [출향인사 환영의 밤]행사를 마련하여 서울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향우단체를 통해 출향인들을 초청하여 환영연을 베풀었다.

이 '환영의 밤' 행사는 제10회 시민체육대회 성화안치 행사에 이어서 사천을 사천예식장 뷔페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수영 시장을 비롯 우리 지역출신 강기갑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서포함우회 진중현 회장 송정수 전회장, 곤양향우회 김인신 회장 등 임원진과 부산에서 삼천포향우회 장병주 회장 사천향우회 조용석 회장 남양향우회 박동식 회장, 울산에서 사천삼천포향우회 김정호 회장, 김재철 울산mbc 사장, 각 향우회 임원진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천봉근 회장 과 김윤근 상임이사,도의원, 사천시의의회 의장과 시의원, 사천시 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김 사천시장은 전국출향인 여러분의 많은 열려와 도움으로 우리 사천시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환영인사를 하였고, 재부 조용석 사천향우회장은 고향에서 이렇게 초청하여 환영연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사천시의 많은 발전을 바라며 더 큰 애향심으로 고향을 위한 일에 참여하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43가보자운동본부 천 회장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사진 전홍비리플렛을 돌리며 이번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사진 전시회를 설명하였고 특히 서울개시는 향우 동문들은 서울시민들에게 우리고향의 아름다운 경치사진전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 "이번엔 한번 나서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 제3회 43애향운동 공로상 시상- 권경기 향우

이 날 [출향인사 환영의 밤]에는 지난 5월 지방선거로 시상이 이루어진 [43애향운동 공로상]을 부산 권경기 향우에게 김수영 시장이 수여하였다. 권경기 향우는 <43가보자>등표찰을 붙이고 전



국의 각 대회에 출전하여 지금까지 4년동안 마라톤 풀코스 27회 하프코스 36회를 뛰며 우리 고향을 알리고 자랑한 공로이다.

2. 재경 삼천포 61년생 동기회-사진전 대비 임시모임

이번 서울사진전 주 홍보후원단체인 재경 삼천포61생동기회(회장:정종남)는 9월21일 7시 서울 선릉역 주변 강진수산횃집에서 다음달 열리는 서울사진전의 주 홍보후원단체로서 회원들이 모여 그 동안 활동부분을 점검하고 차후 활동사항을 모색하는 임시모임을 가지고 의논하였다.

3. 재부 삼천포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이사회

재부 삼천포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이승도)는 9월29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10월에 가질 재부 제6차 정기총회 겸 동문 체육대회에 대한 준비 사항을 논의한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기획홍보팀

제 126호
2006년 10월 2일 (월요일)

우리지역 경제 살리는 기업을 찾아②>

주식회사 EEW 코리아

대구경 후육 강관의 세계적 기업 생산능력과 품질, 사업관리 우수성 세계시장에서 인정



김도재
(EEW 대표이사)

주식회사 이이더블 유 코리아(대표이사 김도재)는 대구경 후육 강관의 세계적 기업인 독일의 EEW(Ermdtebruecker EisenWerk GmbH)사의 투자 기업으로 2000년 12월 경상남도·사천시의 투자 협정으로 설립된 회사로 창립 이후부터 국내외의 산업현장에 대구경 후육 SAW (Submerged Arc Welded) 강관을 공급하고 있다. 대구경 후육 SAW 강관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켓(Jacket), 부두 및 접안시설, 대형 건축물 및 교량, 송유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EEW Korea는 연간 1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API 2B 인증, API 5L 인증 및 ASME "NPT"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생산능력과 품질, 사업관리에 있어 그 우수성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ISO 14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회사 창립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중공업사, 건설사 및 Shell, Conoco, Exxon Mobil, Chevron, Saudi Aramco 등 해외의 주요 Oil & Gas Major사의 사업 파트너로 인정받아 명실공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인 고객의 성공을 도와 더불어 발전하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EEW Korea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이다.

시정 밖 소식

베룩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32년 전 사천시 동동 292번지에 거주하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 하인즈빌에 거주하고 있는 김순자(61세)씨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슴을 찡하게 하고 있다. 김순자씨 모교는 삼천포여고로, 32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모교 후배에게 3년간 장학금을 주었는데,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와 지난 9월 1일 해상관광호텔에서 32년 만에 만나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 박모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4년간 사천시청에 근무하면서 3명의 동생을 훌륭하게 키우고 진전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박모씨는 "그 당시 받은 도움에 너무 감사하다"며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베품이 더 큰 행복"이라고 선배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순자씨는 오는 12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 고향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사천 관광홍보 도우미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남해안최고의 문화·예술·체육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며 발전을 거듭하는 사천시 관광홍보 도우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박남연(삼천포해상비치관광호텔 안내실장, 전화832-3004)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에 빛나는 창선·삼천포대교와 일몰·유람선 관광 등과 연계한 곳에 근무하며 시 관광 홍보에 앞장서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해상관광 문의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역학생과 함께하는 신나는 항공체험교실



한국폴리텍 항공대학(구 항공기능대학)에서는 삼천포중고등학교(교장 허두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체험교실을 9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항공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형항공기를 제작하여 비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 교육이 이 지역학생들에게 항공관련 지식을 고취시키며 개인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물론 지역사회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지난 9월 16일 한국폴리텍 항공대학(학장 이영희) 교직원과 나눔자리 봉사동아리 회원 11명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사천시 송포동에 위치한 사회 복지법인 산소원을 방문하여 현관 청소, 실내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주변 환경 정리 등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를 맞이하여 9월 봉사활동을 실시한 나눔자리 동아리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지난 1학기때 방문한 사천시 이흥동에 위치한 합심원 원생들을 위한 생일축하 잔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의 나눔자리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일정

- 첫째날 : 10월 18일(수)
 - 14:00~15:00 블랙이글, 루마니아호크 등 시범비행(에어쇼 행사장)
 - 15:00~18:00 오프닝 퍼레이드(시가지 일원)
 - 18:00~22:00 개막식 및 전야제(주행사장)
 - 오프닝쇼
 - 개막식
 - 전야제
 - 초정기수 공연(장윤정, 서유혜미리, 진달래 등)
 - 전자바이올린(화이트폭스), 송승환의 난타, 불꽃 이벤트
- 둘째날 : 10월 19일(목)
 - 09:00~13:00 제7회 국제항공기술 심포지엄(삼천포해상관광호텔)
 - 10:30~11:4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3:00~19:00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심포지엄(삼천포해상관광호텔)
 - 14:00~16:00 진주MBC라디오 즐겨요 오후2시 생방송(주행사장)
 - 14:00~15:3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5:30~17:20 한·중 친선 열기구대회(열기구대회장)
- 셋째날 : 10월 20일(금)
 - 10:30~11:4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0:00~14:00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항공우주박물관 일원)
 - 14:00~15:1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5:30~17:20 한·중 친선 열기구대회(열기구대회장)
- 16:00~16:30 수륙양용 항공기 시범비행(삼천포항 일원)
- 16:00~18:00 열기구 탑승체험(삼천포항 일원)
- 16:00~18:00 주행사장 무대공연(주행사장)
- 넷째날 : 10월 21일(토)
 - 09:00~16:00 모형항공기 대회(RC대회장)
 - 10:30~11:4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3:00~17:00 KBS전국노래자랑 녹화(항공우주박물관 주차장)
 - 13:00~17:00 패러글라이딩 대회(각산활공장)
 - 15:30~17:20 한·중 친선 열기구 대회(열기구 대회장)
 - 16:00~16:3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6:00~16:30 수륙양용 항공기 시범비행(삼천포항 일원)
 - 16:00~18:00 NIGHT GLOW(행사장 일원)
 - 19:00~22:00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밤(삼천포해상관광호텔)
 - 마지막 날 : 10월 22일(일)
 - 09:00~10:00 공군음악대 및 의장대 공연(RC대회장)
 - 09:00~16:30 모형항공기 대회(RC대회장)
 - 10:00~13:00 전국인라인 대행진(주행사장)
 - 10:30~11:40 에어쇼(에어쇼행사장)
 - 10:30~16:00 패러글라이딩 대회(각산 활공장, 삼천포공설운동장-개막식)
 - 14:00~16:30 에어쇼(에어쇼 행사장)
 - 15:30~17:20 한·중 친선 열기구 대회(열기구 대회장)
 - 16:00~18:00 주행사장 무대공연(주행사장)
 - 16:00~18:00 NIGHT GLOW(행사장 일원)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주요 행사

- 주최/주관 : 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 / KBS
- 2.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참여희망자 접수
 - 가. 기 간 : 2006. 9. 10~10. 19(당일) 무제한 접수
 - 나. 접수방법 : E-mail, 우편, 방문접수 및 예심당일 접수
 - 다. 접 수 처
 - E-mail접수 : pnj2471@e4000.net
 - 우편, 방문접수 : 읍·면·동사무소, 사천시청(삼천포청사) 2층 상황실
 - 전화접수 : 055)830-8401~4
 - 라. 신청서식 :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다운로드
 - 마. 문 의 : 055)830-8401~4 (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

KBS전국노래자랑 참가신청안내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 중 KBS전국노래자랑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바랍니다.

- 1.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예심	2006.10.19(목) 14:00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녹화	2006.10.21(토) 13:00	항공우주박물관 주차장
방송	2006.10월중	KBS 1TV

에어쇼

- 기 간 : 10.19(목)~10.22(일) 4일간(1일 2회)
오전 10:30/오후 14:00
- 10. 18(수) 14:00부터 참여항공기 시범비행
- 10. 21(토) 오후비행 16:00
- 장 소 : 진사지방산업단지 에어쇼 행사장
- 내 용
 - 경항공기 시범비행 : 다양한 경항공기들이 오색 연막을 뚫으며 아름다운 편대비행 연출
 - 공군 블랙이글 곡예비행 : 블랙이글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 문곡예 비행팀으로 대형 하트모양과 태극문양을 그려내는 등 고도로 숙달된 조종사들이 항공기와 한 몸이 되어 스틸 만점의 고난도 기동 연출
 - 루마니아 호크 곡예비행 : 공인된 무제한 고성능 곡예비행 기인 EXTRA300L이 하늘에서 최대 한계의 기동을 선보임
 - 민, 관, 군 헬리콥터 시범비행 : S-64E, KA-32, AS-350등이 산발 진화 및 산림방제 등 다양한 비행시범을 선보임
 - KT-1, T-50 시범비행 : 대한민국 교유의 기술로 생산된 KT-1, T-50으로 최대성능을 발휘하여 고난도 기동 연출
 - 수륙양용 항공기 시범비행 : 한국항공선교회 소유의 CESSNA-206이 멋진 수상이착륙 기동을 선보임
 - ※ 블랙이글 에어쇼는 10. 18~10. 22 매일 오후 비행(10.20일 제외)
 - ※ 주최측의 사정으로 비행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천예총 프락 음악회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오는 14일(토) 저녁 7시 사천시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가을 밤 예술의 향기를 전해 줄 『2006사천예총 프락 음악회』가 개최된다. 한국예총사천시지부(지부장이 재용)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사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전자 현악기 이용한 퓨전 클래식 「로즈」, 지역밴드 「여섯줄 님 두리」등 공연으로 도심 속 가을 밤의 정취를 한껏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대 그리고 나』로 널리 알려진 듀엣가수 「소리새」와 『소리엔 웨일라』의 초청공연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게 된다. 한편 사천예총 가을콘서트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소 제공과 예술문화의 향수권을 신장시킬 전망이다.

2006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사천시는 어장환경을 깨끗이 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6월말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관내 대포, 노룡, 송포, 중촌, 구랑, 조도해역 마을어장과 공유수면 300ha에 총 24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장바닥 경운, 어장바닥 고르기, 황토살포, 폐각류 및 폐기물 인양 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9월 착공하여 11월에 마무리될 금번 사업의 추진으로 정미와 집중 호우시 남강댐 및 하천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등 오염물질과 어장노화로 퇴적된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사천민의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물론 수입수산물도 포함하여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대상 사업장은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은
 - 《표시 예》
- | | |
|-----|--------------|
| 원산지 | 넙치, 조피볼락 |
| 어 종 | 중국산 |
| 국 산 | 감성돔, 농어, 홍민어 |
- 원양산 수산물의 표시방법이 달라집니다.
 - '07. 7. 1일부터는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국기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해역의 구분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 《표시 예》원양산(태평양), 원양산(미국)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 위 표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유통·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 및 어업인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주항공소년 포록이의 항공이야기 (34)>

자랑스런 사천(四川)의 항공기 - 부활(復活)호



우리나라의 비행기 역사는 '부활(復活)' 호에서부터 시작된다. 부활호는 사천(四川)에서 개발되어 세상에 첫선을 보인 국산1호 항공기이다. 또한 부활호는 한국전쟁 중 순수 한국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국산 1호비행기이며, 국내 최초로 공군이 자체 제작한 2인승 동력비행기이다.

1953년 봄, 사천공군기지에 자리하고 있었던 공군기술학교에서 우리의 항공기 제작 기술을 과시하고 장차 공군이 필요로 하는 초동 훈련기의 국산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2인승 다목적 경비행기를 자체 설계 제작기로 결정하고 그 후 약 6개월 동안 비행기를 설계 제작하

였다. 같은 해 10월11일 사천공군기지에서 설계자 이원복 소령이 동승한 가운데 민영락 소령의 조종으로 시험비행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첫 비행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활호는 항공기 제작을 위한 실습과 조종사들의 연습기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관 용접 동체 구조에 두랄루민 재료를 사용하고, 85마력 엔진을 장착한 다목적 2인승 경비행기이다. 주요제원으로는 날개폭 12.7m, 동체길이 6.6m, 높이 3.05m, 최대속도 180 km/h, 순항속도 145 km/h, 최대중량 600kg, 자체중량 380kg 등이다. 1954년 4월 3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이원복 소령 주관하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국산1호 항공기의 명명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부활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이 경비행기를 부활호로 명명했다. 이후 공군 연락기와 연습기로 사용된 부활호는 1955년 당시 대구에 있던 항공대학

이 인수해 1960년까지 연습기 등으로 사용하다 그 후 대구 경상공고 지하창고에 빼내던 날은 채 보관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활호는 첫 비행 후 52년만인 지난 2004년에 공군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 복원팀의 주관 하에 과거 부활호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이원복씨와 문용호씨 등의 기술 자문을 받아 약 4개월 동안의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 공군사관학교에 전시되어있다.

이번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장에서는 사천의 항공기 부활호의 1/4 축소 모형이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장에서 탄생한 부활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하며, 나아가 부활호의 탄생지인 항공의 메카 사천을 널리 홍보하고자 한다. 자랑스런 사천의 항공기 부활호의 멋진 부활을 기대해본다.

/김형래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사천음성의 풍경

사천음성은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144호다. 조선시대 세종 27년(1445)에 지방의 관청과 민가의 보호를 위해 주변을 둘러싼 성이다.

우리 고을에서 흔치 않은 아름다운 오솔길을 가진 성이기도 하다. 사천읍민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루 일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대지의 호흡에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은 찾아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계의 느낌이 다르고 하루의 시간별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새벽이면 허리를 휘감는 산안개와 싸한 아침공기, 봄이면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송이는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설레게 하고, 여름이면 하늘을 찌르는 적송의 솔바람은 더위를 잊게 한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 꺾여 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 푸른 기상을 보기 위해 나는 아름 드리 우천 홍송의 이 길을 즐겨 찾는다.

서쪽 언덕배기에는 수령 500여년이 넘은 노목이 피뎠던 자신의 모습으로 고을을 지키고 있다.

계단을 따라 들어서면 3·1 기념탑이 마주선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사진 속에 담았던 이 계단은 사춘기의 자양분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때의 풍경과 함께 부셔지던 단발머리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빛바랜 사진 속으로 어느새 저만치 거슬러 올라간다.

청향(淸香)에 행복한 상념에 젖게 하는 이 산책길에는 아직 못다한 여름의 열정이 남아 백일홍의 꽃망울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주위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제1위로 손꼽혔던 관적정은 지금

라. '내가 달을 품고, 달은 나를 품는데, 금 술잔이 빈 채로 달을 맞게 하지 마시라.' 라는 시가 저절로 마음에 외닿는 것을, 은은한 달빛은 단허 있는 마음을 녹여주는 마력이 있나 보다. 나는 문득 하늘까지 달은 달의 그리움을 헤이리게 된다. 아주 가끔 이곳 읍성 위에서 달빛의 환상에 취해보시라. 그리고 행복한 실상의 세계를 맞이해 보시라. 그러면 밤이 어둠을 홀로 지키지 못해 달빛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이곳에 올랐다. 어느새 바람결에 불어오는 가을의 향기는 온갖 열매의 달콤한 향기로 배어 들고, 벚나무 잎은 이르게 주황색을 덧칠해 제법 가을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이제 수일이 지나면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오색물결은 지리산을 거쳐 여기 읍성에도 여김없이 산색(山色)을 물들여 놓을 것이다. 갈바람 소리에 문득 구르몽의 '낙엽시'가 그리워져,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샌티멘털에 젖어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게 하는 곳도 이곳의 매력이다. 마음은 벌써 민추의 정취에 다가선다.

계단을 따라 들어서면 3·1 기념탑이 마주선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사진 속에 담았던 이 계단은 사춘기의 자양분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때의 풍경과 함께 부셔지던 단발머리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빛바랜 사진 속으로 어느새 저만치 거슬러 올라간다.

청향(淸香)에 행복한 상념에 젖게 하는 이 산책길에는 아직 못다한 여름의 열정이 남아 백일홍의 꽃망울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주위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제1위로 손꼽혔던 관적정은 지금



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다. 그 아래로 물레방아가 분수 속에서 세월을 바쁘게 돌리고 있다. 연못 위로 곱게 피어 오른 수련의 청초함은 더운 여름을 밀어내고 번뇌를 물리치게 한다. 연향이 스미는 넉넉한 미소는 더 넉넉히 세상의 향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다독임으로 전해온다.

숲 속 우뚝한 곳에 위치한 수양루는 고색 짙은 누각으로 읍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풍류를 예찬할 줄 아는 멋과 후세를 염려하는 옛 선비들의 지혜가 넘쳐나는 사들이 누각에 가득 차 있다.

'수양루(洙陽樓)' 작은루대(樓台)의 난간(欄干)에서 몇 곡조 읊조리나니 사수(泗水) 고을은 동성(東城)에서 뛰어나서

돌아오는 배 비 물고 음에 밀물어 넘쳐들고

석양(夕陽)은 수풀을 비껴나서 늦 구름 피어오르는데

후대(後代)에 만약이라도 오늘날의 발자취를 안다면

일찍이 이 이치(理致)를 떼땀하게 들날 것을 기약할 것이니라.

上元戊午 春三月 東城居士 石甕 黃奎淵 누대에 올라 적다. 산 중턱에 자리잡은 읍성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과 문화의 공간이었다.

곳에는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한 옛 서민들의 외롭고 고달픈 삶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짙게 배어 있다.

그동안 현대의 물결에 밀려 사천읍성의 존재 가치가 희석되어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이제 사라져 가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옛 선인이 지켜온 문화문화를 되살리던 사천의 이미지가 없게 되어서는 안된다. 후세대의 산 교양장으로 희망과 미래를 일깨워 줄 것이라 생각한다. 동문지(東門址)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니 머지않아 이곳 읍성은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제 한없이 고요한 풍경도 한 줄기 붉은 빛으로 노을에 젖어 들고 서서히 어둠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보기 드문 아름다운 오솔길을 가진 읍성은 내 마음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천읍민 모두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다. 우리 고을의 보물인 이 풍경 속에서 사천읍민은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그려 갈 것이다.

작별인사를 하는 산새들의 화음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라는 법정스님의 법어가 생각난다.

/사천항토문화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조규권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7)

제단(祭壇) 흔적 남아있는 백마산(白馬山)정상



이제 사천시 테두리 종주는 육지면도 절반도 훨씬 넘어 갔다. 곤명면 금성리에서 덕천강 두인보를 건너 제방을 따르면 진주시 수곡면을 잇는 덕천교이다. 강 건너 수곡면은 팔기하루스로 온 들판을 하얗게 덮고 있다. 수곡이라는 이름은 물이 많은 곳을 뜻하여 산꼭대기에 우물을 파도 물이 철철 흘러내린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며, 대천이라는 한샘이 있는데 수곡면 일대의 원천(源泉)이 되었다하여 무실(수곡)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진양호면 건설로 많은 토지가 물속에 잠겼으니 지명에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덕성가든 앞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른쪽으로 덕천강 비랑을 끼고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평陽縣의 산소가 있다. 왼쪽으로 뒤흔던 길은 본촌마을로 내려가는 길이고 비랑을 따라 능선을 따르면 이제 진주시를 뒤로 하고 하동군을 만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는 골 능선을 따르면 장수고개로 내려선다. 도로를 건너 임도를 오르면 황토밭으로 오프로드 연습장이다.

잠시 후 백마산 정상에 올랐다. 백마산(白馬山)은 신라말 소장군(蘇將軍)이라는 장사가 천하를 얻고자하는 야심을 품었으나 한순간의 착오로 대사를 그르친 전설을 간직한 산이다. 정상에는 소장군이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돌무덤 같은 제단(祭壇)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사진). 정상에서 내려서면 큰 노송 한 나무가 지키고 서있고 안부를 지나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참 능선을 따르면 방광마을 뒷산이다. 방광(放光)마을은 백마산에서 소장군이 쓴 화살이 빔을 내며 날아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사천시에서 최북단에 위치한다. 산자락을 내려서면 수목이 울창한 신천지능장으로 16만평이 넘는 큰 규모다. 신천지능장 정문이 있는 고개는 곤명면 은사리와 옥종면 정수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왼쪽으로는 기념물 제30호인 세종대왕 태실지와 제31호인 단종 태실지가 고개 아래에 있다. 조선왕실에서 왕자가 되면 명산을 골라 태를 묻었는데 태실지란 태를 묻은 산을 태봉(胎峯)이라 하는데 바로 은사리 소곡산(157m)이 태봉산이다. 이 태실지는 세종임금이 왕위에 오른던 해인 1418년에 곤양군의 전신인 옛 곤명현(昆明縣)소곡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길지(吉地)라 하여 임금의 태를 이곳에 안치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듬해인 세종14년(1419)에 곤명현(昆明縣)은 남해현과 합하여 곤남군(昆南郡)으로 승격하게 되었는데, 실로 과격했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왜적에게 짓밟히는 불운을 겪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1929년에 태실의 소유권자인 경복궁(景福宮)의 소유자인 모든 민간인에게 팔고 태실은 경기도 양주로 옮겨졌다고 한다. 현재 태실지에는 민간인의 묘지로 변하고 당시의 조형물인 태실비서면 큰 노송 한 나무가 지키고 서있고 안부를 지나 서북쪽으로

일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옥종으로는 불소유항은천과 한국조경수협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적 제154호인 옥산서원이 있다. 옥산서원은 고려 말기의 문신인 문충공 또는 정몽주를 봉안한 서원이다. 공민왕 23(1374)년에 영남안렴사로 진주 비봉루에서 일숙한 인연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사립들과 그 자손들이 예조에 주청하여 순조 30년에 이곳 옥산서원을 창건하고 매년 춘추로 향례를 모시고 있다.

도로를 건너서도 농장은 이어지고 임도를 따라 다시 산등성을 넘어서면 곤명 옥종간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서 작은 하천을 경계로 하동군 옥종면과 경계하는데 하천을 건너면 백토마을이다. 12가호가 살고 있는 백토마을은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로서 땅은 사천 땅인데 행정구역은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이다. 권봉태씨(64세)의 경우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 456번지에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8번지이다. 그러다보니 땅세(재산세)는 사천에 갔다 바치고, 사람세(주민세)는 하동에 바친다고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양쪽 시군에서 서로 미루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특히 경계가 되는 작은 하천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백토마을을 지나 도로로 올라서면 동서산업 공장이 있는 백토재이다. 백토재는 곤명면과 옥종면,북천면을 경계하는데 지리산에서 삼신봉을 넘어 달려온 낙남정간을 여기서 다시 만난다. 낙남정간은 안남골을 지나 원전고개 오랑동으로 이어지고 이제 시경계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시경계는 백토재에서 낙남의 마루금을 따라 1005번 지방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험악이 2시간정도 다리품을 팔면 하동군 북천면 삼거리입구에 도착한다. 곤명면 봉계리와 북천면 옥정리가 경계되는 곳으로 2번 국도가 지나는데 백목이라는 곳이다. 오늘 25km의 긴 여정을 여기서 접는다.

/조만중 · 사천농협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생활의 바른 길잡이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밝고 맑게 해 주는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명(明)나라의 범일분이 편찬한 것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려말 학자인 주적(秋適)이란 분이 편찬한 것이라고도 한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논어의 가르침이기도하다.

原文 後漢書曰 孝는 百行之源이요 衆善之初라 후한서에 이르기 효도는 온갖 행동의 근본이요, 모든 사람이 착하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1. 사람의 으뜸된 도리는 효도이다.

효도는 모든 행동의 뿌리다. 동양윤리의 으뜸이다.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회에 헌신할 수 있으며,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효와 도리는 선(善)의 으뜸으로 하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은혜가 지극히 높고 무궁한 것이 가장 간절한 것이다. 효사상은 부모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보존하고 키워 주는 것, 또한 아버지라는 사실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고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 하늘이 펴 낸 오륜(五倫)에서 부자(父子)가 첫 번째에 있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이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타고난 지성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미치지 못함이 있다. 성인(聖人)이 사람의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인하여 그 아버지를 친히 하는 도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공경의 실속을 기르므로 그 가르침이 되고 배움이 됨이 이것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명한 학자인 이퇴계 선생은 후려 백행지원(百行之源),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했다. 이윤곡 선생 또한 효를 백행지도(百行之道), 모든 행동의 길잡이라고 하며 효도야말로 첫째가는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서양의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흘러들어와 충효사상이 차츰 없어져 가고 있음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효도를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에는 질서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지켜지는 질서는 사회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로 이어져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효도는 당대의 부모뿐 아니라 칠세(七世)의 부모까지도 정성들여서 모시고 받들어야 한다. 칠세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조상과 많은 이우까지도 말하는 것이다. 효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의 자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년에 한 번쯤 조상에게 제사나 올리고 무덤에 찾아가서 성묘나 하는 것이 효가 아니다. 효도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 스스로 행해야 하며,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그렇지 않건 가려서는 안된다.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이 없는 샘이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형래 · 사천읍 정리의

식도락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명예욕, 부사욕, 권력욕 등이 생긴다. 식욕, 즉 먹고 싶은 욕구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망이다. 생명체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종족을 번식시킬 수도 없다.

대다수의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먹을거리를 먹지만, 인간의 예외로 먹는 즐거움, 다시 말하자면 식도락을 느끼고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맛 있다고 이름난 음식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거리가 멀어도 자동차로 여행 삼아 맛난 음식을 찾아 떠나기도 한다. 매스컴에서도 맛 기행을 자주 보여주고, 일부 음식점은 방송과 신문에 나온 집이라고 현수막을 붙이며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먹는 즐거움은 정말로 지대하다. 어찌 보면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가 출출한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넉넉하고 목은 감정이나 미움 따위로 붉은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많은 모임이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은밀한 거래나 청탁도 밀실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성사되곤 한다. 여기에 부유해 전국 방방곡곡에 음식점이 불야성을 이루고 휴일이면 거리거리 모여 한 판의 먹자판을 벌이기도 한다. 비야흐로 먹는 음식 전성시대라고나 할까.

그런데 매사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은 법, 먹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누리다 보니 요즘은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세상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점점 편안해지는 데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 비만인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맛난 음식 앞에서 식욕을 줄이는 건 고통에 가깝다. 이를 주체하지 못해 마구잡이로 먹다가 비만으로 연결돼 요즘은 또한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다. 다이어트를 하지만 음식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 먹고 보자는 심사가 발동돼 다 이어트는 호지부치되고 만다.

식도락은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의 한 가지이다. 먹는 데도 도가 있고 예절이 있다는 말과 같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는 건 동물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분수와 예의와 예절을 알며 먹어야 한다. 탐욕과 무절제는 갖가지 성인병이나 불치병으로 몸의 반란을 부른다. 많이 먹는 건 몸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적게 먹으면 영양부족만 걱정되지만 많이 먹으면 만 가지 질병을 우려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악영향도 미친다. 보양·보신한다고 생명체를 마구 잡아먹는 식들은 즐거움은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넉넉하고 목은 감정이나 미움 따위로 붉은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많은 모임이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은밀한 거래나 청탁도 밀실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성사되곤 한다. 여기에 부유해 전국 방방곡곡에 음식점이 불야성을 이루고 휴일이면 거리거리 모여 한 판의 먹자판을 벌이기도 한다. 비야흐로 먹는 음식 전성시대라고나 할까.

그런데 매사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은 법, 먹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누리다 보니 요즘은

/이옥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담당관실 공모담당
 ▲팩스 (055)830-4219
 ▲이메일 : gongbo@e4000.net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채택 시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읍

사천읍자생단체 및 공군부대장병 깨끗한 환경정비



추석을 앞두고 사천읍 자생조직 단체에서는 도로변 및 등산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천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우석)와 부녀회에서는 9월14일 오전 9시부터 회원 51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향교산 체육공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날 예취기와 낫, 호미로 도로변에 잡초제거 및 쓰레기 줍기와 향교산 등산로에 풀베기를 하여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사천읍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객판도)에서도 9월15일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 34명이 주요 간선 도로변의 풀 뽑기 및 휴지 줍기 등을 실시하여 추석을 앞두고 더럽혀진 거리를 말끔하게 정비했다.

또 9월 16일 자원봉사의 날에는 우리 지역에 주둔하는 공군 3218부대장병 700여명이 오전 8시부터 여를철 더럽혀진 사천강에서는 약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산책하는 사람들과 읍민의 휴식처로서의 면목을 갖췄다

정동면

정동면 각급단체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봉사



지난 4일 정동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염곡마을을 찾았지만 지 30년 넘게 도배를 하지 못한 할아버지 집에서 6시간에 걸쳐 도배, 장판교체는 물론 집안 청소와 세탁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4일에는 정동면 새마을회 50여명이 대곡·여곡·대산마을을 찾아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 3세대에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회원 50명은 3개조로 편성하여 가정마다 도배, 장판교체, 도색, 부엌문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손수 전개하였다.

또한 이장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도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성품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경상남도 새마을문고 하계 한마음 캠프 개최

지난 8일 합천호 관광농원에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전 시·군 새마을문고지도자 하계 한마음 캠프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사천 송보 작은도서관 정태연 회장이 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도종곡 도문고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아름다운 태극기가 펄럭

동계2리 부녀회(혜미리 부녀회)에서 10월 달의 각종 국경일(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이하여 대형 태극기 30개를 구입하여 아파트 입구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를 본보기로 전 세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남면

한가위 맞이 사랑의 행사 운동전개



사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객석도) 주관으로 한가위를 맞이하여 일반가정 및 단체를 대상으로 쌀 한줌 나누기 운동을 펼쳐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모금한 쌀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사를 전개하였다.

또한 사남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회장 하익수)와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윤유덕)는 한가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다시 한번 더 찾는 고향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죽천천 및 도로변, 마을 안길 곳곳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남면 여러 자생단체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경로당을 찾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용현면

용현면 건강걷기대회 개최



용현면은 지난 9월 3일 더불어 행복한 용현면, 이사 오고 싶은 용현면으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면민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종포 물양장을 출발하여 해안도로에서 사천대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코스로 용현 면민을 비롯한 사천시민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걷기대회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면민 체위 향상 및 미래 시청 소재지 주민으로서 자

긍심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걷기대회 후 펼쳐진 다양한 행운권 추첨으로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통양보건진료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동반 목욕봉사

통양보건진료소에서는 지난 5일 통양 보건진료소 관할 7개 마을 주민대표(이장 남·여새마을 지도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노약자, 장애인 등 45명이 함께 창녕군 소재 부곡온천 목욕 봉사를 다녀왔다.

주민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목욕 봉사는 그간 목욕 봉사 순회 차량으로만 실시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부곡온천으로 이틀 주민과 함께 동행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평소 거동의 불편 하여 바깥 출입에 애로를 겪었

던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축동면

이웃사랑 운동 전개

축동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김순분)에서는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정부의 생계보조에만 의존한 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5세대)을 위해 매월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주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목전에 두고 평소 제공하고 있는 밑반찬뿐만 아니라 각종 계수용품인 조끼, 돛, 민어 등(환가액 1,000천원)을 정성껏 마련, 전달하여 수혜 가정(대상자)에 이웃의 소중함과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곤양면

가화마을회관 준공



곤양면은 지난달 8일 사천시장을 비롯해 마을향우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화마을회관 준공식 및 헌관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된 가화마을회관은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72평에 27평 규모의 지상 1층 슬래브 건물로 50가구 110명의 주민들에게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되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노후로 인하여 방한과 방은 성능이 떨어져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회관 이용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신축으로 동네 어르신 및 주민들의 사랑방은 물론 마을의 구심점으로 대소사를 결정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맞이 환경정비 실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살기 좋은 사천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고향의 깨끗하고 정겨운 풍경으로 환영하기 위하여 마을별, 자생단체별 추석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각 마을마다 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 안길 정비, 진입로 풀베기, 하수구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달 18일 적십자봉사회원들의 시가지 환경정비를 시작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면지정들은 곤양C 주변 및 곤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동서동

새마을 단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전개

새마을지도자동서동협의회(회장 구찬홍)에서는 8월 31일 ~ 9월 1일까지 회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실안동 453-2번지 김세우(70세)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이제까지 불편하게 사용해 오던 부엌 구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해 주는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실안 해안도로변 꽃길 정비



동서동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및 동조직원들은 지난달 11일 실안 해안도로변 꽃길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9월 13일 제8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와 9월 17일 사천시민 건강 달리기 및 걷기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해안도로변 꽃길 정비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서동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제조업 후 펜지, 메리골드, 코데우스 등 2000여본을 식재하고 물을 주는 등 해안변 꽃길 조성에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각산 경로당 준공식 가져

동서동은 지난 15일 김석훈 부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경로회원, 일반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산지역 경로회원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각산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서동 178-24에 위치한 각산 경로당은 165백여만원의 사업비로 248㎡의 부지위에 110.53㎡의 건축물로 준공되었다. 이 각산 경로당은 기존 각산경로당과 삼용 경로당을 통합하여 세워졌으며, 이용 회원은 150여명이다. 앞으로 이 경로당은 이 지역 경로 회원들의 여가활동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노인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구동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 순찰활동 전개, 건전문화 앞장

선구동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강영식)에서는 여름방학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지도·선도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이나 유흥업소 주변 등 유해환경 순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순찰활동은 7월에서 9월까지 매일 2인 1조로 관내를 순찰하고, 한달에 두번 정기적으로 회원 24명 전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청소년 탈선예방 협조 전단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망산공원 일대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선구동에 한명의 탈선 청소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8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선구동자연보호위원회 1위 기쁨



지난 9월 13일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서 사천에서 후원하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서 주관한 『제8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선구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상수) 등 20여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보호의식 고취로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참가, 선구동팀이 1등을 차지하

는 기쁨을 토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회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삼천포대교 공원의 경치도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선구동자원봉사회 어려운 이웃에 도배봉사 실시

선구동자원봉사회(회장 이정순)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봉사를 실시하였다. 선구동 1조직단체 1사업 가구기와 연계, 자원봉사 회원 14명이 참여하여 선구동 관내 저소득가정 2세대(가구당 35만원 소요)를 방, 거실 도배 및 장판교체 작업 실시로 추석명절을 맞이한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

동서금동

노부부의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지난 8일 동서금동에 거주하는 강재근(73) 할아버지와 최병지(67) 할머니 부부는 동서금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간 품물이 모은 복지저금통 4개를 개방한 성금 51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하였다.

강재근 할아버지 부부는 삼천포 서부시장에서 생선판매와 고기상자 수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터라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정을 실천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방위협의회 결속의 자리 마련

동서금동 방위협의회는 8월 27일 회장 박경제 외 20여명의 조직원들이 목장원(고성군 하이먼 소재)에서 단합대회를 가져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향촌동장, 향촌동 방위협의회장이 참석하여 향촌·동서금 예비군중대 통합에 따른 두 단체 간 합동월례회 개최 등 친선도모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벌용동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봉사와 입상으로 위상 제고



벌용동주민자치센터(위원장 박성주) 프로그램인 '소리누리' 풍물패(단장 황물선)에서는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공모사업에 당선된 바 있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봉사단체이자, 문화예술 단체이다.

'소리누리'에서는 5번째 봉사공연을 9월 29일 순영병원에서 가졌으며, 사물놀이, 판소리, 에어로빅,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공연은 환자 및 보호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예팀(강사 황명자)에서는 지난 9월 1일 경상남도 서예대전에 출품하여 한정순씨가 해서부문에서 입선을 하는 영광을 안게 되는 등 벌용동 주민자치센터는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벌용동 3호광장 메밀꽃 구경하러 오세요



벌용동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7월에 벌용동 3호광장 천일주유소 옆 도로변에 심은 메밀(1,500평)이 하얀 꽃을 피어 가을철에 눈을 연상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동에서는 도심지내 생활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방치된 공한지 3,500평을 활용하여 메밀다 가는 도심정서를 꽃향기와 더불어 추억의 쉼터를 마련하고, 관광 사천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삼천포항 진입 관문인 벌용동 3호광장 주변에 봄에는 유채, 초가을에는 코스모스, 가을에는 메밀꽃 등 계절별 특색있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방촌동

추석맞이 공동묘지주변 풀베기작업



바르게살기 향촌동위원회(위원장 고신길) 회원 20여명은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우천에도 불구하고 동 관내 공동묘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위치한 사동·모래마을 공동묘지 진입로의 제조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조상의 묘를 찾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고향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앞장섰다.

남양동

독거노인세대 도배봉사로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남양동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박정련)는 9월 9일 관내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강동수(70세)를 방문하여 주택 전체 도배봉사를 실시하고 집안 살림도구 청소는 물론, 이불을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고 밑반찬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였다.

사천이 뜨고 있다 ③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써 물류통로에 있습니다.

어느새 사천시는 '부러운 도시'로 경관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어 사천이 뜨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게재코자 합니다.

다 함께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갑시다.'

/편집자 주



사천초전공원 조감도.

총면적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천읍 시가지와 1km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진주권역의 5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천대교, 백천사, 삼천포대교, 항공 박물관과 연계된 관광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조성지에 연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천초전공원 조성

친환경적 자연생태공원으로 시민쉼터 제공

올해 11월 착공, 내년말 완공 예정

사천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휴식처 제공을 위해 사남 방자리 및 초전리 일원에 137,500㎡(41,590평)의 부지에 사천초전공원을 조성한다.

여가활동 증가와 대규모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다.

내년 말 완공예정인 초전공원은 연꽃관찰데크, 야외무대, 숲속쉼터, 숲속교실, 피크닉장, 데크스텐드, 건강마당, 이벤트광장, 바닥분수, 수변무대, X-게임장, 카페테리아,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으로 조성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아파트 입주면 1,630세대와 진사공단 40개기업체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4)>

사촌리 도요지(沙村里 陶窯址)



사촌리 도요지는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27번지 208㎡, 29-1번지 730㎡중 493㎡, 34번지 2,284㎡중 1,160㎡, 35번지 724㎡, 36번지 747㎡, 37번지 6,063㎡중 4,322㎡, 41번지 691㎡, 산20-3번지 73,724㎡중 14,369㎡ 등총 22,714㎡로 2001년 5월 3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 234호로 지정되었다.

사남면과 고성군 하이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꼭너머' 등성이에 위치한 이 도요지는 조선후기의 가마터로 갑발, 요벽체편, 백자편 등 도자기로 추정될 수 있는 유물들이 지표상에서 대량 수습되었다. 최근 민간인들의 분묘가 조성되어 도요지가 많이 훼손되고있는 실정으로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긴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조선후기의 도요지가 많지 않은 사실로 감안하면 사촌리도요지는 조선후기 도자사(陶磁史)연구의 학술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므로 앞으로 이 도요지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사천시에서는 2002년 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38일간 50,000원원의 사업비로 경남문화재연구원 에 의뢰하여 시굴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약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백자완

유백색의 색조를 띠고 있는 백자완편으로 내저 곡면이다. 내저 중앙은 편평하나 측사면은 급하게 꺾이어 기벽을 이루고 구연은 약하게 외반 되었다. 굽은 오목굽으로 굽의 절지면에서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고 있다. 굽은 높은 편이며 태토는 백색을 띠는 백토이다. 유약은 기내외의 전면에 다소 불량하게 시유되었고, 일부 빙열이 확인되며 완 일부에 잡물이 묻어있다. 기신 내저와 굽에는 모래발집으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어 구웠다.

② 백자 접시

회백색의 유조를 띤 내저 곡면의 백자접시이다. 내저 중앙은 비교적 편평하며, 기내외면은 내경하는 듯 완만하게 외경되었으며 구순은 둥글다. 굽은 바닥을 깎지 않은 평굽과 약간 오목

하게 깎은 오목굽 두 가지이다. 굽은 낮은 편이며, 태토는 정선된 백토로 백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유약은 기내외의 전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었는데, 빙열이 확인되는 것도 있으며 접시 일부에 잡물이 묻어있다. 기신 내저와 굽에는 모래발집으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어 구웠다.

③ 백자 종지

유백색의 백자 종지편으로 내저 곡면이다. 내저 중앙은 편평하나 측사면은 급하게 꺾이어 기벽을 이루고, 구연은 약하게 외반 되었다. 굽은 낮은 평굽으로 바닥을 깎지 않았다. 유약은 기내외의 전면에 다소 불량하게 시유되었으며, 내부 일부에 잡물이 묻어있다. 기신 내저와 굽에는 모래발집으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어 구웠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조사지역에서 수습된 유물은 백자편들로서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등으로 백자편만 확인되는 것으로 백자만 생산하였던 가마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백자는 전반적으로 유약만 유백색을 띠고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잡물이 묻어있고 흘러내린 흔적이 보이며 시유무늬는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업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30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것은 수습된 벽체가 별다른 수리흔적을 보이지 않은 점으로도 증명된다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기류는 고급품과 저급품, 번조 방법에 의한 제작여건에 따라 굽에 유약을 씌우는 상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작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급품의 경우 굽 전체에 유약을 씌우는 반면 저급품은 굽에 묻은 유약을 긁어내거나 시유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사촌리도요지의 조사에서 확인된 자기류의 유약과 시유방법 및 번조수법으로 미루어보아 관요 제작이 아닌 민수용의 지방요의 성격을 보이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 후반에 백자를 구웠던 가마임을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첨언하고 있다.

사촌리 도요지와 인접해 있는 곳인 대신마을 북쪽 구릉 말단부의 대나무밭에 있던 백자가마는 1970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소산마을 북쪽 뒷편 대나무밭에서 2기의 백자가마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곳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공간 확장으로 인하여 귀중한 유산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의 보존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촌리도요지 시굴조사 약 보고서』 2002. 9
- 사천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3. 10. 6. 경남문화재연구원
- 사천시지편찬위원회 『사천시지 · 하권』 2003. 11. 25. 울산 · 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사천문화원 『향토문화유적』 2004. 8. 한글마당 출판
- 사천시 『문화재관리대장』



와룡산의 메아리

10월 문화의 달에

가을의 중심인 10월은 오희백과가 무르익어 수확을 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날씨도 서늘하고 쾌청하여 문화생활을 하기엔 안성맞춤의 계절이다. 산과 들은 단풍으로 서서히 물들고 계절의 순환 법칙에 따라 제 역할을 다 하고 떨어져 나뉘는 낙엽을 보며 누구나 한 편의 시구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남다른 로맨스를 꿈꾸고 정처 없는 방랑객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한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종달새의 화음이 선율을 이루며 귀뚜라미의 교향악이 밤을 수놓는 계절에 문화의 매력을 흠뻑 젖어보는 것도 백 유익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 하면 종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상류층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거나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화는 영어 Culture의 번역어로서 라틴어 Cultus의 번역어로서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발음

같이 경작하다 라는 뜻이므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을 이용한 생산 활동 외에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행위들이 다 문화생활이다. 이런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기는 일상이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관람하고 각종 전시회를 찾으며 외국의 문화행사에도 참석하여 인생을 즐긴다.

문화는 인류의 삶을 만족시키고 부추일 일상의 근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화나 예술을 가까이 하면 우선 심성이 고요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세상살이가 행복해진다. 무로나 작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의외로 많다. 문화생활은 정신을 살피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비료이다. 고전이나 양서를 읽는 즐거움에 빠져도 좋고 라디오의 주파수 FM에 고정시켜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컴퓨터나 VTR을 통

해 수준 높은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 있고 이웃이나 친지와 내 고장의 명소를 탐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즐거우거나 식도락에서 지나친 쾌락을 찾지 않는 버릇을 들여야 하겠다. 요즘 보면 영악과잉과 문명의 이기가 제공하는 편리함에 빠져 비판과 갖가지 문명병들이 극성이다.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줄 줄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비로 지출해 볼 일이다.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다는 건 핑계이다. 요즘 사람들의 심성이 피폐하고 성격이 난폭한 청소년들이는 것은 전후적 계급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락문화에 탐닉하는 까닭이다. 천고마비지점을 맞아 질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습성을 들여 생활의 여유와 낭만을 찾고 가족애를 다지며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넉넉하게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가져 보자. 윤택하고 할거로운 인생살이가 연출 될 것이다.

박정도 ·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증강산 기행기 <8월21~23일>

가깝고도 먼 봉래산 가는 길

1. 첫째날(8월21일 월요일, 날씨:맑음)

올 초 겨울 금강산인 '설봉산'을 만난 후 천하의 명산을 사계절 두루 둘러보아야겠다는 야무진 다짐을 하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 쏘는 바람에 다소 겁이 빠져 버렸다. 따로 노는 걸 좋아하는 북한을 위해 똑같은 2박3일 코스에 새로울 것도 없는데 돈을 써야 하나 생각하니 잠시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여름 금강산이 부르는 소리와 같이 가기로 한 동료와의 약속을 뿌리칠 재간 없었다. 간단한 행장을 꾸러 장마와 성수기를 피해 8월 하순경 2박 3일로 가깝고도 먼 곳인 북한 땅을 향해 발길을 내딛었다.

아침 서울 광화문 발 09:00 금강산행 대원관광버스에 우리들이 몸을 실은 건 전날 심야버스를 타고 어렵사리 찾은 절집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난 후였다. 사천주차장에서 간밤인 11시 10분에 떠났으니 꼭 10시간만인 셈이다.

자다 깨다 차창으로 보이는 건 꼬불꼬불하나마 포장된 강원도 인제, 홍천 같은 지방들이다. 1차선 길을 차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낮 12시 30분경 휴게소에 도착 하더니 20여분 점심시간을 준다. 서둘러 강원도 감자떡과 비빔밥을 먹어 치우고 출발했다. 30여분 더 달리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사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인지라 우리 금강산에 빨리 도착하려 했다. 그러나 김창국부터 마신 센. 2시 30분에 일제히 수속을 밟는다는 전광판 불빛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육로로 오는 모든 관광버스는 이곳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 중착지인 셈. 먼저 오거나 늦게 오거나 줄을 서서 서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버스를 옮겨 타서 관광증을 받아 목에 거니 북한 땅이 코앞에 서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지나고 무표정인 북한군을 지나 이제야 북측 출입국을 통과한다. 실물과 대조하니 사진을 찍어지지 쳐다보니, 벌써 오래 전 찍은 사진을 관광회사에 보내어서 조금 찢어졌다. 그러나 앞사람도 통과, 나도 통과...

'설렁한 분위기라 관광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노파심. 민족의 그리운 명산인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은 줄을 이어 서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옛그제 신문을 보니 충청도에 사는 한 효자아들이 아흔 둘 아버지이 소원하는 금강산을 지게를 만들어 놓고서 탐방했다는 기사처럼 자녀들이 보내준 금강산 답사도 있었고,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 교회에서 자녀를 동반한 견학 등으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관광특구는 출렁거리고...

"DMZ 지나 북한군 보니 실감 아룡진 금강 꿈인지 생시인지 모란봉 교예단 표기공연 합권"

북한 여행 중 최고의 볼거리라면 단연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서커스 공연일 것이다. 정형화된 문화예술의 극치인 교예공연은 한 번은 볼 만한 것이다. 지난 겨울 세 사람은 통일 연수에서 충분히 맛보았던 것이라 일부는 문화회관으로 향하고, 우린 금강산 온천으로 뛰어 들었다. 옆의 박선생은 사실이 온천물이 너무 그리웠다며 얼굴 표정에는 그 특유의 시원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회관 바로 옆에는 건물 하나 올라오 고 있었다. '농협중앙회'란 이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 뷔페식 식당인 남측에서 운영하는 온정각서관과 면세점으로 이어지고 별칭 한 거리를 두고 맞은편에는 온정각동관이라는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는 금강산의 버스 종착지, 온정각 동관을 배경으로 한 설경이 놀랍던 지난 2월을 지나 무성한 녹음과 금강처럼 단단한 바위들의 이중주는 '이곳이 그곳이 단가?' 하는 느낌과 아울러 모습에도 변화가 있다. 꼬마 열차와 곱돌이 석상, 김정숙 여사 휴양소였던 곳, 리모텔링하여 외급 호텔로 우뚝 서 있었다. 6시 30분경 공연의 회합과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이 연민의 정을 느낀 이들과 얼굴이 한참에 빠진 듯한 느낌으로 반들 거리는 온정팀들이 만나 온정각 동관 공개도 식당에서 푸짐한 식사를 하였다. 녹두지짐과 도무룩이 별미였다. 안내원은 예쁜 북한 아가씨. 말투가 부드럽고 정겨워서 친절함이 더한 것 같다.

숙소는 고성향 가까이 있는 금강패밀리비치 호텔. 호수처럼 잔잔한 고성향을 눈앞에 둔 숙소는 이국의 정취와 함께 정겨운이 흔 풍경도 간직하고 있었다. 최근 자전기도 도로도 만들어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걷는 것이 보였다. 멀리 맞은편이 6·25때 접전지역인 고성이고, 지금 그대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가까이 으레로 떠 있는, 불야성을 이룬 유람선치고는 특이한 모양을 한 것은 '해금강 호텔'이라고 한다. '바다에 떠 있는 금강'이란 말이 다.

짐을 풀고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니 발길은 저절로 해금강 호텔 앞에 서 있다. 호텔 지배인인 듯한 양복 입은 현대직원 신사분이 반갑다. "어서 오세요. 여긴 북한 사람들이에 올수 없습디다. 내일이면 연수자 2000여명이 들어 올 거예요."

가운이 짝이었다. 바람은 시원하고 맑아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부르는 노랫소리인 맑고 고운 금강의 자태가 묻어 나오는 듯했다.

이인숙 · 삼천포여중